

400억원 대 곤충산업 시장 잡아라

광주·전남 곤충농가 207곳 판매액 47억...화순·고흥서 많이 길러 '애완용 장수풍뎅이' '먹는 귀뚜라미' 등...전국 규모 3년새 3배

"귀뚜라미 과립, 환 등 '먹는 귀뚜라미'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기회찬(66)씨는 3년 전부터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100평(330㎡) 규모 귀뚜라미 농사를 짓고 있다. 원래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기씨는 식품으로서 귀뚜라미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과감히 곤충사육에 뛰어들었다. 기씨가 50여 일 동안 키워낸 귀뚜라미 성충은 전북 공장으로 납품돼 여러 종류의 식품으로 가공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는 먹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있지만 관련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국내 판로를 늘릴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애완용 장수풍뎅이'와 '먹는 귀뚜라미' 등 곤충산업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곤충농가는 200곳이었고 사육곤충 판매액은 47억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2018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곤충업 신고자 수는 광주 19개소·전남 188개소다. 이는 곤충관련 생산·가공·유통업 부문을 합한 수치로 2016년 88개소(광주 3개소·전남 85개소), 2017년 185개소

(광주 16개소·전남 169개소)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곤충업 신고자는 2318개소로 전년(2136개소)보다 8.5% 증가했다. 곤충업자는 3년 전(2015년·726개소)에 비하면 무려 3배 늘었다. 지난해 국내 곤충 시장은 375억원 규모로 1년 전(345억원)에 비해 8.7% 성장했다. 유통업계는 머지않아 곤충 시장이 4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전남 곤충업 비율은 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 신고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50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427개소), 경남(255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에서 곤충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25곳의 농가가 운영되는 나주였다. 화순(17곳), 고흥(16곳), 무안(15곳) 등에서도 곤충농가가 10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 산업 유형별로 보면 188곳의 농가 가운데 생산농가가 176곳으로 93%(중복 신고)를 넘었고 일부 농가는 가공업(44곳), 유통업(77곳)을 병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사육곤충 효자품목은 단연 '꽃무지'다. 딱정벌레의 한 종류인 꽃무지는 지난해만 전남에서 12억8000원 어치가 팔

2018년 전남 사육곤충 판매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렸다. 판매액 순으로 보면 갈색거저리(5억 5400만원), 귀뚜라미(4억 4700만원), 장수풍뎅이(3억 2900만원), 나비(2억 550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곤충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 메뚜기, 식용누에, 백강잠 등 7종이다.

곤충산업은 식용을 비롯해 가축 사료용, 약용, 전적용 등 분야도 다양하다. 매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식용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식용 곤충은 10억 4500만원 어치 팔렸다. 가장 큰 매출을 올린 부문은 전적용(14억 4000만원)이었고 사료용(3억 8000만원), 애완·학습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용(3억 4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뚜렛이 늘고 있는 농가 수에 비해 지역 곤충 판매장은 빈약한 편이다. 전남지역 곤충관련 판매장은 12곳이었지만 대형마트를 제외한 독립매장은 광양 2곳, 목포 1곳, 보성 1곳 등 4곳에 불과했다.

연구소·생태공원·체험학습장 등 산업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02년에는 곡성에 한국유용곤충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전남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함평나비대축제'에는 매년 30만여 명이 찾으며 '티켓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여수·담양 등 전남 체험학습장 6곳에는 매년 8000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4.86 (+3.61)	금리(국고채 3년) 1.67 (0.00)
↑ 코스닥 706.93 (+2.95)	↓ 환율(USD) 1192.80 (-1.20)

6~8월 광주·전남 아파트 8228가구 입주

광주 4126가구·전남 4102가구

오는 6~8월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8228가구가 집들이 한다. 광주 4126가구, 전남 410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1060가구, 1427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9년 6~8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1만 2359가구로 5년 평균(9만 5000가구) 대비 18.2% 증가했다. 전년 동기(11만 7000가구) 대비 3.9% 감소했다.

광주는 4126가구, 전남은 4102가구 등 총 8228가구가 입주한다. 광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60가구에 비해 25.6%, 전남(1427가구)은 34.7% 증가한 것이다.

광주는 6월 남구 호천1지구 시티프라

디움 1164가구, 동구 내남지구 진아리채 1차 483가구, 서구 화정동 엘레지 퍼스티지 218가구 등 186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7월에는 광산구 우산동 행복주택 361가구, 동구 용산지구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528가구와 모아엘가 570가구, 북구 양산동 유람 유블레스스카이뷰 102가구 등 2261가구다.

전남은 7월 목포시 석현동 목포라송 센트럴카운티 3차 361가구, 영암군 삼호읍 영암산업단지 중흥S클래스 1360가구, 해남군 구교리 파크사이드 2차 323가구 등 2044가구가 입주하고, 8월에는 목포시 용해지구 천년가 308가구,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중흥S클래스 1464가구, 여수시 관문동 골드클래스 286가구 등 2058가구가 새 주인을 맞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경기둔화·가계부채 진정세에 금리 내릴까

OECD 이어 KDI도 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가계부채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통화당국의 정책 향방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의 2.6%에서 2.4%로 낮추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동반한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가 둔화할 것인 전망은 금융시장에선 금리 하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기준 연 1.66%로

기준금리인 연 1.75%보다 낮은 상황이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은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그동안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이 이전보다는 줄었기 때문이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540조원으로 전 분기 말(1536조 7000억원)보다 3조 3000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 연 2.8% 27일 출시

7000만원 한도 지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2.8%로 정해졌다. 월세자금 대출은 연 2.6% 금리가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27일 출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8%다. 이는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로 설정됐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연합뉴스



장성 사과농가 일손돕기

농협 전남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 등 70여 명은 22일 장성군 남면 사과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를 펼쳤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대한민국 생애수도 순천

2019

순천방문의 해